

---

# 2021년 제48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1. 11. 26. ~ 12. 2.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1. 11. 26.	시청률	0.001

### 【총 평】

채용 시장이 줄어든 상황에서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가상 면접 체험'과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해 달라지는 변화, 다문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던 농구 교실의 경제적 위기, 의사와 간호사 등 5명으로 구성된 '백세 건강 돌봄팀'의 활약 등을 전했다. 특히 독일 비스바덴에서 열린 김장 축제는 한류의 위상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고, 김장 축제의 주체가 파독 간호사분들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타국에서도 고향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과 우리 문화를 알리는 모습이 감동을 안겨주었다.

### 【구성 및 내용】

- 구직 청년들, 취업 대비 '가상 면접 체험' 호응  
구로구의 청년일자리 문화공간 '청년이룸'은 청년들을 위해 비대면 가상 면접 체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VR을 쓰고 실제 면접에 대비 하는 것으로, AI 가상 면접관은 질문도 하고 답변에 대한 피드백도 주는 등 실제 면접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
- 이제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시대로 간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소비기한은 유통기간과 상관없이 보관조건을 지킬 경우 표시된 기한 내에 섭취할 수 있다. 유통업체 측에서는 음식물 폐기물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품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 독일 동포·현지인, 김장 문화 함께해요.  
독일의 비스바덴에서 교민들과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독일인들이 직접 김치를 만들어 보았다. 김장담그기 행사는 1985년 비스바덴 한인간호사회가 마련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달래고, 독일에 한국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다문화 어린이 농구단 '글로벌 프렌즈' 지켜주세요  
다문화 어린이들이 우정을 쌓으며 농구를 즐기는 '글로벌 프렌즈' 농구팀이 후원기업의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300여명의 농구단 졸업생들이 펀딩을 실시해서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후원도 부탁했다.
- 우리집으로 찾아오는 건강 주치의  
의사, 간호사, 영양사, 복지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백세건강돌봄팀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찾아서 방문하는 서비스로 만족해하고 있다. 혈압, 당뇨 등 기본 건강체크를 실시하며, 영양사는 맞춤형 식단을 알려주고, 물리치료사는 관절운동을 도와준다.
- 주민들 앞장서 '지역 살리기' 문화제 열어  
세종시 원도심인 조치원 왕성길이 도시재생산업을 통해 간판모양을 통일하고 주차차량을 없애고 정돈하여 깔끔하게 변했다. 또한 마을협동조합에서 마을 카페도 운영하고 있으며, 떡만들기 체험 등 도시재생을 통해 마을 곳곳이 재탄생하였다.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1. 11. 26.	시청률	0.057

### 【총 평】

코로나19 관련 국내와 세계 현황을 점검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부스터샷 접종 필요성, 새로운 방역체계 발표 예정 등을 다루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경제&이슈는 '민생 안정·내수 진작 위한 소상공인·민생경제 지원 대책'편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대한 배경과 맞춤형 지원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해 정책수용성을 높였다.

'알뜰신잡'에서는 2022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식용색소 사용기준 가이드'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다. 육류 구매 후 고기에 도장이 찍혀있는 식용색소 사용 기준이 총 혼합 사용량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 【구성 및 내용】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돌입한 이후 확진자수 발생이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수도권의 확진자수 발생이 역대 최다이며 특히 교육부는 미접종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있다. 고3의 경우 백신접종률은 96.9%로 확진자가 현저히 급감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경제 지원 대책을 상세히 소개해 수용자 만족도를 높였다.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 성장률은 4%를 넘어서고 물가상승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며 고용도 코로나 이전 상황을 회복했다. 다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위주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손실보상제를 마련했는데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이 이번 민생경제 지원 방안의 핵심으로 고용 취약계층, 서민 물가 안정, 돌봄방역 지원 방안 등이다. 매출 회복, 수요 보강 지원 방안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진 자영업자들의 매출회복을 위한 거시경제 차원의 원격적 지원이다.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상생 소비지원금 등 3종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고 동행세일을 조기 개최한다. 더불어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관광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했다. 이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체육수련시설 바우처 지급을 확대한다. 고용 취약계층 등 지원은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과 더불어 새로운 산업체계에서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안으로 특히 청년층, 아르바이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구직급여에서는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보강하고 직원훈련 대상을 확대하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 산재예방을 지원한다. 그리고 청년 금융 지원 또한 확대한다. 기타 민생경제 지원 방안은 세계경제가 전체적으로 살아나면서 국제유가 등 물가도 올라간다. 이에 정부는 농가 및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도서지역 연료비를 지원한다. 그 밖에 돌봄 지원도 확대하며 보건소 코로나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프로그램	산이 좋아 물이 좋아		
방송일자	2021. 12. 26.	시청률	0.007

### 【총 평】

‘추억을 품은 이발소 - 경북 의성’편에서는 65년 동안 이발사로, 50여 년간 한 자리를 지켜온 주인공의 삶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철학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오래된 이용용품, 여든 두 살의 이발사, 그 곳을 찾는 단골 노인들의 모습이 도시나 일상에서는 볼 수 없는 희소성으로 소중하게 다가왔다. 손 때 묵은 이발도구에 내려앉은 먼지에서 그동안의 세월을 읽을 수 있었고, 50여 년의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이발도구와 함께 여든 두 살 이발사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냈다. 또한 아침 일찍 밖으로 나가는 손님(농민)을 위해 한결같이 이른 시간에 이발소 문을 여는 주인공의 성실함을 잘 그려냈다.

### 【구성 및 내용】

경북 의성의 ‘사촌 전통마을’, 경북 의성군 점곡면은 대표적 유교 마을로 안동 김씨, 권씨, 풍산 류씨의 집성촌이며 류성룡 선생이 태어난 곳이다. 권세 있는 양반의 기왓집들 주변을 둘러싼 흙담이 인상적이다. 경상북도 의성은 한때 농업의 중심지로 많은 주민들이 살았던 곳이지만 지금은 인구 5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이다.

경상북도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는 경북 의성 사천리 가로숲과 사촌 전통마을을 지나 82세의 이발사를 찾아갔다. 이발소의 간판도, 실내도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들이 줄어드는 이곳에 50여 년 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발소가 있다.

처음엔 양복 기술자가 되고 싶었지만 체구가 작아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발소를 보니까 깔끔하고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다. 열일곱 살에 이발 기술을 배워 1972년부터 이곳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에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인공은 여든이 넘은 연세에도 이른 아침부터 가게를 열고 점점 줄어드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가게가 오래 된 만큼 찾아오는 손님들도 오랜 단골이기에 말을 하지 않아도 원하는 대로 머리를 손질해 주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도 낯선 단어이고, 서비스의 뜻도 지금과는 다른 그 시대부터 기술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그를 찾아오는 손님들도 이제는 몇몇 단골밖에 없다고 한다. 인구가 감소하고 손님들도 줄어드는데 미용실과 경쟁을 해야 하는 그는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씩씩해 한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손님을 기다리다 나무 조각을 시작했다. 이제는 많이 남는 시간을 조각 작업으로 무료함을 메우는데 손으로 하는 일은 무엇이든 자신있게 할 수 있다. 강아지, 거북이, 오리 등 조각품들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기다림의 시간이 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순간까지도 이발소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 세상은 변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고 똑같은 일상을 지키며 여든이 넘은 연세에 오십 년 넘게 한 자리에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계신 주인공의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소박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생각하게 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1. 11. 27.	시청률	0.016

### 【총 평】

‘차근차근 천천히 이토록 불편한 행복’편에서는 귀촌 7년차 60대 중반 부부와 30대 후반 아들 형제 등 한 가족이 생태공원을 가꾸며 여유를 찾는 일상을 그려냈다. 특히, 자연 속에서 차근차근 천천히 생활하며 도시에 비해 불편한 전원생활을 택한 가족의 행복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제목이 관심을 유발했다. 한옥온실, 유리온실, 숲책방 등 휴식공간을 갖추고 카페를 운영하며 생활하는 가족의 단란함과 여유가 눈길을 끌었다. 밤에는 ‘불멍’, 아침에는 ‘숲멍’, 낮에는 ‘일멍’ 등 일상의 다큐를 통해 서두르지 않고 자연과 함께 즐기는 전원생활의 이점을 표현했다.

### 【구성 및 내용】

강원도 홍천군에 소재한 생태농장을 운영하는 60대 중반 부부와 30대 후반 아들 형제의 이야기는 귀촌을 꿈꾸는 젊은이가 부모와 함께 행복한 귀촌생활을 전달해 시청자에게 귀촌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4만 2천 제곱미터 면적의 농장은 부모님이 20년 전부터 가꿔온 정원에 작은 아들이 직접 지은 건물들이 더해져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귀촌 7년차인 작은 아들은 나무로 된 공간을 좋아하여 한옥목수 일을 배웠고 유리온실, 트리하우스, 숲책방 등의 건물을 농장 내 조성했다. 농장 내 카페는 부모님이 창고로 쓰기 위해 방치된 공간을 꾸민 것이다. 최대한 한국적인 느낌을 살리고 부모님이 조성한 정원과 어울리게 노력했다. 카페 손님들을 위해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며 메모도 할 수 있는 드로잉 세트도 제공하고 있다.

꽃을 좋아하는 어머니는 겨울을 대비한다고 한창 바쁘다. 아버지는 꽃이 많아짐에 따라 양봉도 하려 한다. 어머니는 매일 꽃을 심고 꽃을 기다린다. 그리고 아들은 이런 어머니를 보면서 도시와는 다른 마음을 배운다. 손님들을 위한 나무 정원도 조성했다. 원, 네모, 세모 모양의 나무 정원은 이곳을 찾은 아이들이 즐거워하길 바라고 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비록 건물 안에 있더라도 나무, 숲들이 주는 정취를 느낀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몸과 마음을 치료받기도 한다. 농장을 찾는 사람들이 원할 때는 아버지가 정원을 소개해 주기도 한다. 트리하우스는 어린이 손님들의 자연놀이터를 만들고자 시작했다. 그러나 막상 실제로 제작하다보니 자금의 부족, 현실적 어려움 등을 느끼고 있다.

강원도 홍천군의 숲속 정원에서 새소리와 산속에서 흐르는 물소리 등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리들이 멋지게 그려졌다. 또한 온가족이 모여 차를 마시면서 각자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은 가족의 따뜻함과 서로를 배려하고 느낌이 따뜻하게 전달되었다. 차근차근 천천히 완성한 농장의 모습이 잘 전달되었는데, “지난 20년 부모님의 정원에서 익어온 세월은 이제 아들에게로 이어간다.”는 메시지가 진한 여운을 남겼다. 이 밖에 부부와 두 아들이 농장을 어떻게 꾸며 나갈 건지에 대한 철학을 잘 조명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1. 11. 28.	시청률	0.079

### 【총 평】

‘친북’에서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자체 자력으로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인해 북한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북한은 외부의 도움없이 스스로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도이고, 패쇄적인 북한의 방역정책으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미접종 나라는 아프리카 최빈국 에리트레아와 북한이다. 북한은 올해 3월과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친 백신지원센터 코백스의 백신 무료 공급 제안을 거절했다. ‘이슈 텔링’에서는 전력난과 식수난이 심각한 북한 주민들의 아파트 생활을 들여다보며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을 살펴보았다.

### 【구성 및 내용】

북한이 지난 3월에 코백스에 의한 백신 제안 거부의 속뜻은 백신 효과에 대한 의문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백신을 대량 지원받았던 몽골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한 것을 보고 중국 백신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되었고, 지난 9월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특정 백신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환자가 없다는 북한의 발표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3일 청진에서 결핵환자 10명이 독감 진단 후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전했다. 환자의 가족들에게 사망 통지를 한 후 급하게 매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11월 22일 북한노동신문은 ‘과학 기술로 방역장벽을 더 높이’라는 기사를 통해 ‘과학 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비상 방역 사업도 과학기술에 의거할 때 성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에서 주장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북한 정부의 더 강력해진 방역 구제 때문에 장마당이 축소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식량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올 겨울 가장 위험한 시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전망이다.

‘이슈 텔링’에서는 북한의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평양과 맨해튼을 조합해 만들어진 ‘뽕해튼’ 아파트들은 사실상 북한 주민의 1% 최고위층만 거주할 수 있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아파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아파트에는 난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굴뚝이 있는데, 북한의 전력난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아파트 주방에 아궁이를 들여 장작과 구멍탄으로 난방과 취사를 하고 있다. 또 부실한 수도시설을 대신해서 아파트 마당에 있는 공용 수도에서 물을 길러 욕실의 욕조에 보관해 사용하고 있다. 엘리베이터를 쓰기 힘든 상황을 고려해 각 층마다 도르래가 있어 무거운 짐과 물을 길어 나르는 데 사용하고 있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1. 12. 28.	시청률	0.001

### 【총 평】

‘1991년 봄, 강기훈 유서 대필 의혹 사건’편에서는 30여 년 전 유서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인 강기훈 씨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살방조범으로 낙인 찍혀 인생을 희생당한 사례를 팩트체크로 재조명한 기획이 돋보였다. 한 젊은이를 투신자살을 부추긴 유서 대필자로 지목해 억울하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재심 청구 끝에 24년 만에 누명을 벗은 사례를 집중 조명해 국가 사법제도의 횡포와 오판이 젊은이의 삶과 인권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피해화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일깨웠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과정, 국과수의 오판, 법원의 유죄 판결, 진실조사위 조사에서의 무혐의 결론, 재심청구, 대법원의 최종 무죄 확정 과정을 탐사보도 포맷으로 규명한 구성이 실제 파악과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또 피해자에 대한 국가 사과, 화해를 권고한 내용을 소개하고 당시 관계자들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점, 당시 검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아직도 사건의 전말이 매듭지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 【구성 및 내용】

1991년 봄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강경대 열사, 김기설 열사의 분신 등 전국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김기설 열사의 분신은 누군가 자살을 부추겼다는 ‘유서대필 사건’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당시 한겨레신문 기자였던 김의겸 국회의원은 “그때 언론이 사건을 조작하고 허위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 검찰과 공범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그의 자살을 부추긴 사람으로 당시 전민련 동료였던 강기훈씨가 지목된다. 강기훈씨는 “모든 걸 다 조작하고, 사람들을 고문해서 없던 사건도 만들고 그런 수많은 것들을 옆에서 지켜봤다”며 “국면전환용인데 이러다 말거다. 안한 걸 조작을 하겠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집요하고 강경하게 유서대필 혐의로 씩씩했다.

강기훈 씨는 2008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1년 4개월 뒤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리지만 검찰이 재심 결정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재항고해 4년 6개월이 지나 2012년 12월 재심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2월 강기훈의 자살방조 혐의를 무죄라고 판결했으나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해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강기훈 자살방조죄가 무죄로 판결났다. 자살방조 누명 24년 만에 받은 무죄판결이다.

강기훈 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에 자진출두, 검찰의 수사과정, 법원의 판결, 재심청구과정,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과정, 당시 사건 관계자 민사소송 등을 시간의 흐름대로 구성해 흡입력을 높였다. 또 사건 당시 필적을 감정했던 국과수 직원이 뇌물수수, 허위감정 혐의로 구속됐지만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요청한 4차례의 문서 감정에 모두 참여한 40년 경력의 문서감정전문가는 “7개 감정소에서 김기설의 자필이고 강기훈의 대필이 아니다”라는 점을 부각시켜 설득력을 높였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1. 12. 28.	시청률	0.037

### 【총 평】

‘한류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편은 디지털로 시간과 경계를 허물어 우리의 문화재를 새롭게 복원해 향유하고 전달하는 의미를 짚어보았다. 특히 디지털 복원의 의미와 전망 등을 통해 우리의 전통 문화를 되살리고 향유해서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문화유산의 힘을 살펴보았다. 특히 800년 전 신라시대 최대 사찰인 ‘황룡사’를 AR로 복원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한양 도성을 따라 600년의 세월을 보여주었다. 또 조선 최고의 명화인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디지털 명화로 감상하며, 디지털 복원의 가치를 증명했다.

국립중앙 박물관에서 진행중인 디지털 실감 영상관, 수장고 체험 등 다채롭게 펼쳐지는 디지털 관람 현장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월과 VR/AR 체험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제약없이 문화유산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손끝으로 만나는 문화유산 체험존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 【구성 및 내용】

문화유산의 디지털화를 앞당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은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2030’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복원에 대해 한층 더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예술 작품이 과거에는 소유의 개념이 강했지만 예술작품의 본래 존재 목적은 대중의 향유라 할 수 있다. 최근 기술의 발달로 훼손이 심해서 복원이 불가능한 문화재도 복원과 보존이 가능해짐에 따라 디지털 복원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문화재를 복원해서 보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서 명작을 영원한 명작으로 살아 숨 쉬게 하는 효능이 있다.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의 목적은 향유로 우리의 문화유산을 미래 세대가 향유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로 전달하는 데 있다. 기존의 전통적 보존 관리 방법도 지원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새로운 보존, 관리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우려가 있었지만 디지털은 문화유산 향유에 더 큰 소통의 역할을 할 것이며 새로운 형태의 기록으로 유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수집, 보존, 보급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해외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가 2021년 기준 20만 4천 점으로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해외의 우리 문화재를 디지털로 귀향시켜 향유에 가치를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과 문화유산의 융합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800년 전 소실된 신라시대 최대의 사찰 황룡사의 디지털 복원과 한양도성 600년, 조선시대 경복궁으로의 시간여행 디지털 복원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디지털 명화로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서 디지털 복원 구현의 구체성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디지털 귀향 캠페인의 의의와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비롯해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작업의 우려 부분까지 다양한 접근과 분석으로 집중도를 높였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1. 12. 28.	시청률	0.011

### 【총 평】

‘휴먼 뉴딜 - 사람이 먼저다’편에서는 한국형 뉴딜의 ‘디지털 배움터’와 ‘청년 안전망 강화’를 소개해 디지털 역량 강화에 관심이 있는 시니어 계층과 취업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디지털 배움터 과정의 시니어 인턴, 호텔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청년층의 현장 실습 사례가 탐방 형식으로 구성돼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또한 휴먼 뉴딜의 정책 배경, 계획 등을 상세히 알린 점이 수용자 만족도를 높였고 휴먼 뉴딜 국가정책이 곧 나의 뉴딜로, 자신의 삶의 행복을 가져온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일깨운 구성이 설득력을 제고했다.

### 【구성 및 내용】

디지털배움터 시니어 인턴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네이버로 길찾기, 스마트폰메모, 알람 등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삶의 편의를 누리고 컴퓨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컴퓨터를 배워서 젊은 사람들과 같이 재밌고 편리하게 살고 싶어 배움터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다.

디지털 속 격차는 일상생활 불편을 넘어 사회경제적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에 정부는 한국판뉴딜의 핵심 축으로 사회고용안정망을 추진해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디지털배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이 지난해부터 디지털 포용 사회를 열어가기 위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지난해 1천개의 교육장소를 마련하고 온라인과 병행해 428,000명을 교육했다. 정부는 농어촌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디지털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642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올해 말까지 1,2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포용국가는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1년간 교육과 지원을 통해 격차를 줄여나갔고, 일자리 양성에 집중했다. 고용노동부와 기업이 연계해 추진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기초직무교육, 심화교육,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휴먼뉴딜을 통해 청년정책은 체계적이고 세밀해졌다. 이를 위해 내년도 투자규모는 4조 3천억 원 대비 6조 8천억 원이 증가한 11조 1천억 원으로 확대했고, 2025년까지 26조 6천억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50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예산 2조 2천억을 새롭게 배정했다. 청년들은 청년행복주택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활비(6개월 간 50만 원씩 지원)지원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휴먼뉴딜과 함께 청년정책 5개년(2021~2025)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